

## 주윤발 “창작의 자유, 한국 영화의 가장 큰 경쟁력”



▲ 지난 5일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KNN 시어터에서 열린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는 홍콩 배우 주윤발. 사진=연합뉴스

“한국 영화의 가장 큰 경쟁력은 자유입니다. 소재가 넓고, 창작의 자유도 많은 점을 높이 사요. 가끔은 ‘이런 이야기까지 다룰 수 있어?’라고 생각하기도 하죠.”

홍콩의 톱스타 주윤발(저우윤파·67)은 5일 부산국제

영화제 참석 중 부산 해운대구 KNN 시어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하며 한국 영화를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전날 일 열린 제28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호스트인 배우 송강호로부터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을 받았다.

주윤발은 기자회견에서 “지금 (홍콩 영화는) 규제가 많아 제작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 서도 “홍콩의 영혼을 담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홍콩 영화의 황금기가 지나가고 한국 영화가 떠오른 데 대해서도 “한 지역이 정체돼 있을 때 다른 지역이 일어나 더 멀리까지 나아가는 건 좋은 일”이라며 “한국 영화의 부상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말했다.

2018년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미답의 주인공이 됐던 그는 “어차피 이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안 가져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가도 상관없다.”며 “하루에 밥 두 그릇이면 충분하다.”며 웃었다.

## 톰 행크스 “광고에 등장한 젊은 나는 AI”

배우 톰 행크스가 인공지능(AI)이 만든 자신의 이미지가 동의 없이 광고에 쓰인 사실을 알리며 팬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행크스는 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조심하라! 나의 AI 버전으로 치과 보험을 홍보하는 영상이 있다. 그 광고와 나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적고 올해 67세인 자신의 실제 모습보다 젊어 보이는 사진을 첨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행크스가 이 광고와 관련해 법적 조처를 하거나 삭제를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 그의 대리인에게 물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 톰 행크스가 자신의 SNS에 게시한 이미지. 사진=instagram(톰행크스)

행크스의 인스타그램 계시불은 AI를 활용한 ‘가상 배우’(virtual actor)가 할리우드의 민감한 문제로 떠오른 상황에서 주목된다.

지난 7월부터 할리우드 배우들이 파업에 나선 이유 중의 하나도 AI 문제다. AI가 가상 배우들의 연기 장면을 만드는 데 쓰이는 CGI(컴퓨터 생성 이미지) 기술을 활용해 저렴하게 만들어 배우가 일자리를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행크스는 “이제 누구나 AI, 딥페이크(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 기술로 나이에 상관없이 자기 모습을 재현할 수 있다.”며 “내가 내일 버스에 치여 크게 다치더라도 내 연기는 계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피원하모니 등, ‘징글볼 투어’ 합류



▲ 그룹 피원하모니. 사진=FNC엔터테인먼트

K팝 그룹 피원하모니, NCT 드림, (여자)아이들이 미국 최대의 연말 음악 축제 ‘아이하트라디오 징글볼 투어’에 출연한다.

미국 라디오 방송국 아이하트라디오(iHeartRadio)는 최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3 아이하트라디오 징글볼 투어(2023 iHeartRadio Jingle Ball Tour)’의 라인업을 발표하고 이들의 이름을 올렸다.

공개된 일정에서 피원하모니는 11월 28일 댈러스, 12월 1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징글볼 투어’에서 공연을 펼친다.

NCT 드림은 보스턴(12월 10일), 워싱턴(11일), 애틀랜타(14일) 등 3개 도시에서 열리는 무대에서 (여자)아이들은 로스앤젤레스(12월 2일), 시카고(4일), 디트로이트(5일), 뉴욕(8일), 보스턴(10일), 워싱턴 D.C.(11일), 필라델피아(12일) 등 7개 도시에서 공연한다.

이 공연은 아이하트라디오에서 매년 연말 미국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여는 최대 콘서트로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지난 2000년부터 션 멘데스, 카밀라 카베요, 두아리파, 테일러 스위프트, 할시 등의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K팝 그룹 중에서는 방탄소년단과 몬스타엑스가 이름을 올린 적이 있다.

올해는 올리비아 로드리고, 나일 호란, 사브리나 카펜터, 시저, 원리퍼블릭 등이 이 공연에 참여한다.

### 숫자퍼즐 정답

9	8	4	1	2	5	6	3	7
5	7	2	3	8	6	1	9	4
1	3	6	4	9	7	5	8	2
8	9	1	5	7	2	4	6	3
6	5	3	8	1	4	7	2	9
2	4	7	6	3	9	8	1	5
7	1	8	9	4	3	2	5	6
3	2	5	7	6	1	9	4	8
4	6	9	2	5	8	3	7	1

### 숨은그림찾기 정답

